

다양한 포장재 응용제품 개발

고객을 위한 고품질·저가제품 공급

민남규/(주)자강 대표

“작년부터 제조업계는 위기상황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는 포장산업의 총체적 위기라 할 수 있어요. 지금의 단계에서 해결의 실마리는 기업간 공정거래와 정부의 안정적 중소기업 육성정책, 그리고 한국자원재생공사의 활발한 활동만을 기대할 수밖에 없군요.”

지금의 현실이 이러하기에 더욱 바쁠 수밖에 없다고 (주)자강의 민남규 사장은 한숨섞인 말을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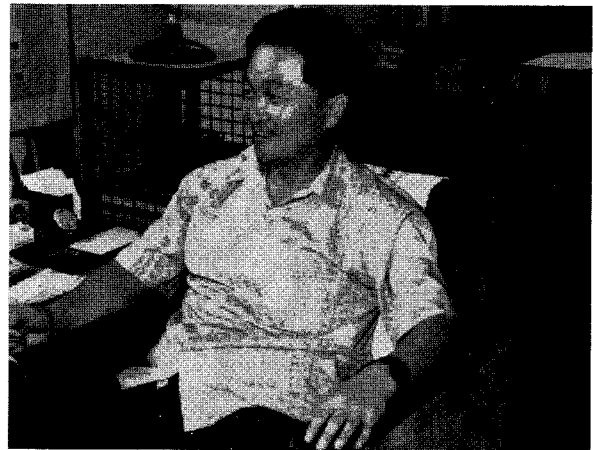
농업용필름과 가전제품 케이스, PVC안정제, 그리고 폴리프로필렌 필름을 전문적으로 생산해 온 자강을 74년부터 이끌어 온 민남규 사장은 이번에 개발한 기화성 방청필름으로 나름대로 자부심을 갖고 있다.

“세계적인 방청업체인 미국 CORTEC과 기술 제휴로 부식방지에 탁월한 성능을 지닌 VCI필름, 즉 기화성 방청필름은 요즘 각종 구조물의 부식으로 인한 심각한 사회문제가 제기되고 있고, 전기 전자 철강 등 각종 업계에서 제품의 제작, 운반, 보관 및 사용중에 부식으로 인하여 치명적인 손실이 발생하고 있으며 또한 부식방지를 위한 방청유를 사용함으로써 이를 제거하기 위한 비용의 추가 부담과 잔유물로 인한 심각한 환경공해가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서 VCI필름의 개발은 수입대체 효과뿐만 아니라 환경보호에도 큰 공헌을 할 것”이라고 내다보며 “저밀도폴리에틸렌(LDPE), 고밀도폴리에틸렌(HDPE) 또는 폴리우레탄에 방식제를 함유한 포장재로 금속제품 또는 금속부품의 부식을 방지하는 제품으로서 이 제품은 철 및 비철금속을 포함한 모든 종류의 금속표면을 부식으로 부터 보호함과 동시에 우수한 흡습기능도 발휘합니다.

또한 기존의 제품과는 달리 아질산염과 같은 유독성 물질이 함유되지 않아 인체에 해가 없으며, 미국 FDA로부터 안전규격을 획득했고, 생분해되는 특성으로 인하여 환경공해를 줄일 수 있고 재활용이 가능한 특징을 지니고 있습니다.”

지금 제조업계의 문제에 대해 민남규 사장은 한국자원재생공사의 활동에 아쉬움을 토로했다.

“한국자원재생공사는 플라스틱원료업계로부터 매출액의



▲ 민남규 (주)자강 대표

0.5%를 받고 있는데 과연 그것으로 무엇을 하는지조차 모르니 답답하기만 합니다. 오히려 민간기업에서 눈에 띄게 활동하고 있는 것을 보면 무언가 잘못되어 있다”고 잘라 말하며 “플라스틱업계가 지금의 시련을 딛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것은 뭐니뭐니 해도 고객만족이죠. 소비자들이 호응을 못하면 그 회사는 문을 닫을 수밖에 없거든요. 고객을 위해 좋은 제품을 싸고, 적합한 시기에 공급할 수 있다면 기간산업으로서 자리매김 하리라 생각합니다.”

덧붙여서 포장을 낭비로 생각하지 말고 각계 각층 -여자, 남자, 어린이, 어른 등-에 맞는 포장디자인이 나와야 된다고, 그리고 위해서는 포장기계에서부터 포장재질의 총체적인 개발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민남규 사장은 “현재 생산되고 있는 각종 필름에 VCI기술을 적용한 다양한 제품을 생산하고 있으며 앞으로는 각종의 포장재와도 응용이 가능한 다양한 형태의 신제품 개발에도 주력할 계획입니다. 또한 총체적 방청의 개념으로 필름을 비롯하여 건축, 토목, 화학, 군수 등 산업 전반에 적용 가능한 방청 제품들을 국내시장에 공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변준섭 기자